

# 여론조사꽃 제31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3\_04

ARS+CATI

제29차 ARS조사

제14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 여론조사꽃 제31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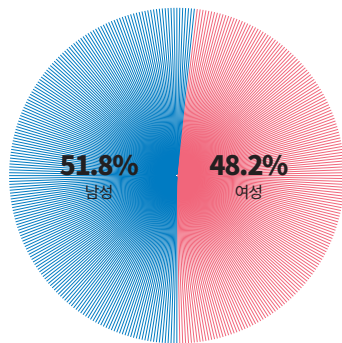
## ARS & CATI

###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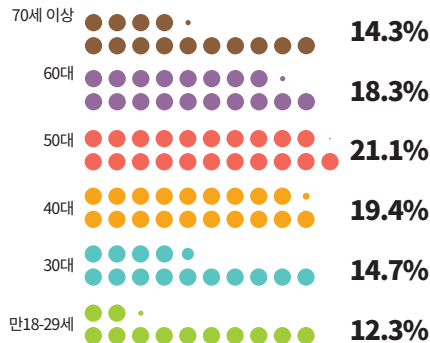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1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3.0% [총 통화시도 33,383명]
조사기간	2023년 3월 17일 ~ 3월 18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1	100.0%	1,001	100.0%	1.00
성별	남성	519	51.8	496	49.6	0.96
	여성	482	48.2	505	50.4	1.05
연령	만18~29세	123	12.3	166	16.6	1.35
	30대	147	14.7	151	15.1	1.03
	40대	194	19.4	182	18.2	0.94
	50대	211	21.1	195	19.5	0.92
	60대	183	18.3	169	16.9	0.92
	70세 이상	143	14.3	138	13.8	0.97
	지역	서울	194	19.4	189	18.9
지역	인천·경기	308	30.8	319	31.9	1.04
	대전·세종·충청	109	10.9	105	10.5	0.96
	광주·전라	98	9.8	96	9.6	0.98
	대구·경북	97	9.7	98	9.8	1.01
	부산·울산·경남	149	14.9	150	15.0	1.01
	강원·제주	46	4.6	44	4.4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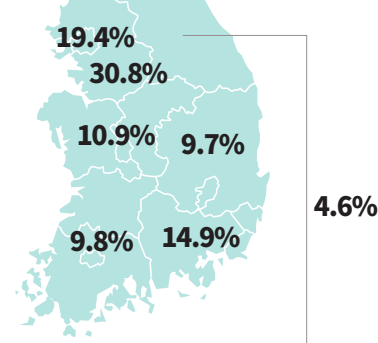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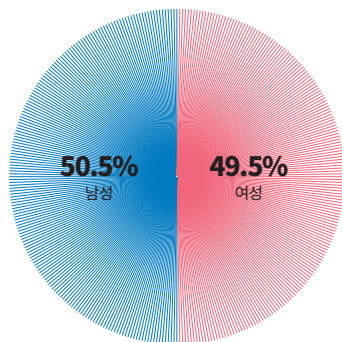


###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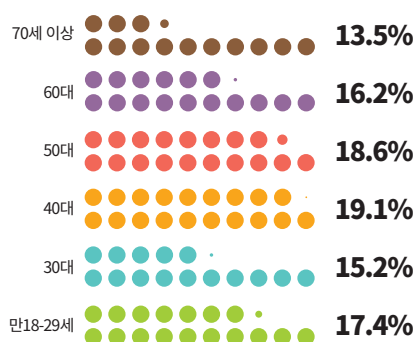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21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6.4% [총 통화시도 6,231명]
조사기간	2023년 3월 17일 ~ 3월 18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21	100.0%	1,024	100.0%	1.00
성별	남성	516	50.5	506	49.6	0.98
	여성	505	49.5	515	50.4	1.02
연령	만18~29세	178	17.4	170	16.7	0.96
	30대	155	15.2	151	14.8	0.97
	40대	195	19.1	188	18.4	0.96
	50대	190	18.6	199	19.5	1.05
	60대	165	16.2	172	16.8	1.04
	70세 이상	138	13.5	141	13.8	1.02
	지역	서울	194	19.0	192	18.8
	인천·경기	326	31.9	324	31.7	0.99
	대전·세종·충청	111	10.9	108	10.6	0.97
	광주·전라	99	9.7	99	9.7	1.00
	대구·경북	97	9.5	100	9.8	1.03
	부산·울산·경남	151	14.8	153	15.0	1.01
	강원·제주	43	4.2	45	4.4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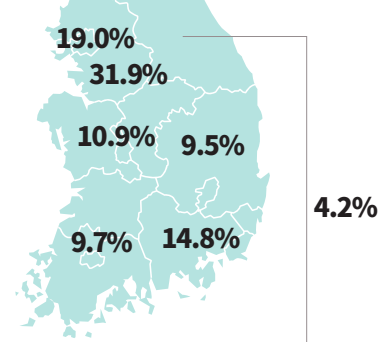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는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 여론조사꽃 제31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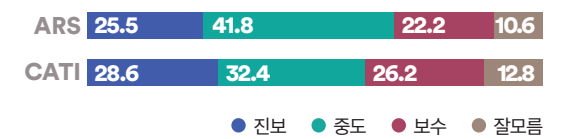
## ARS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31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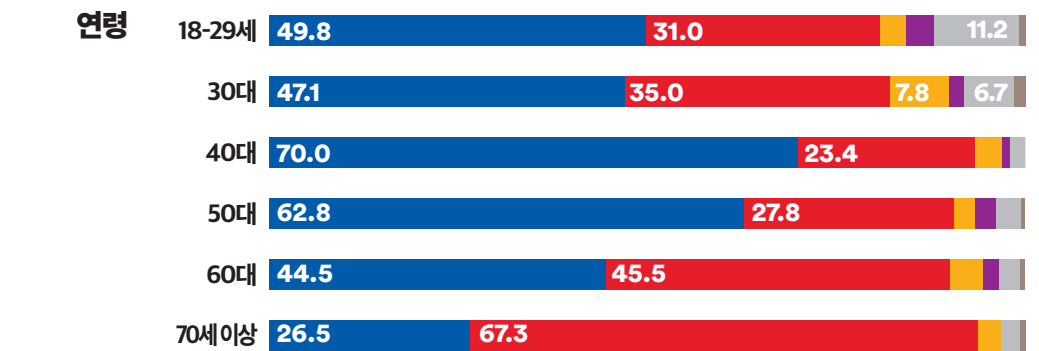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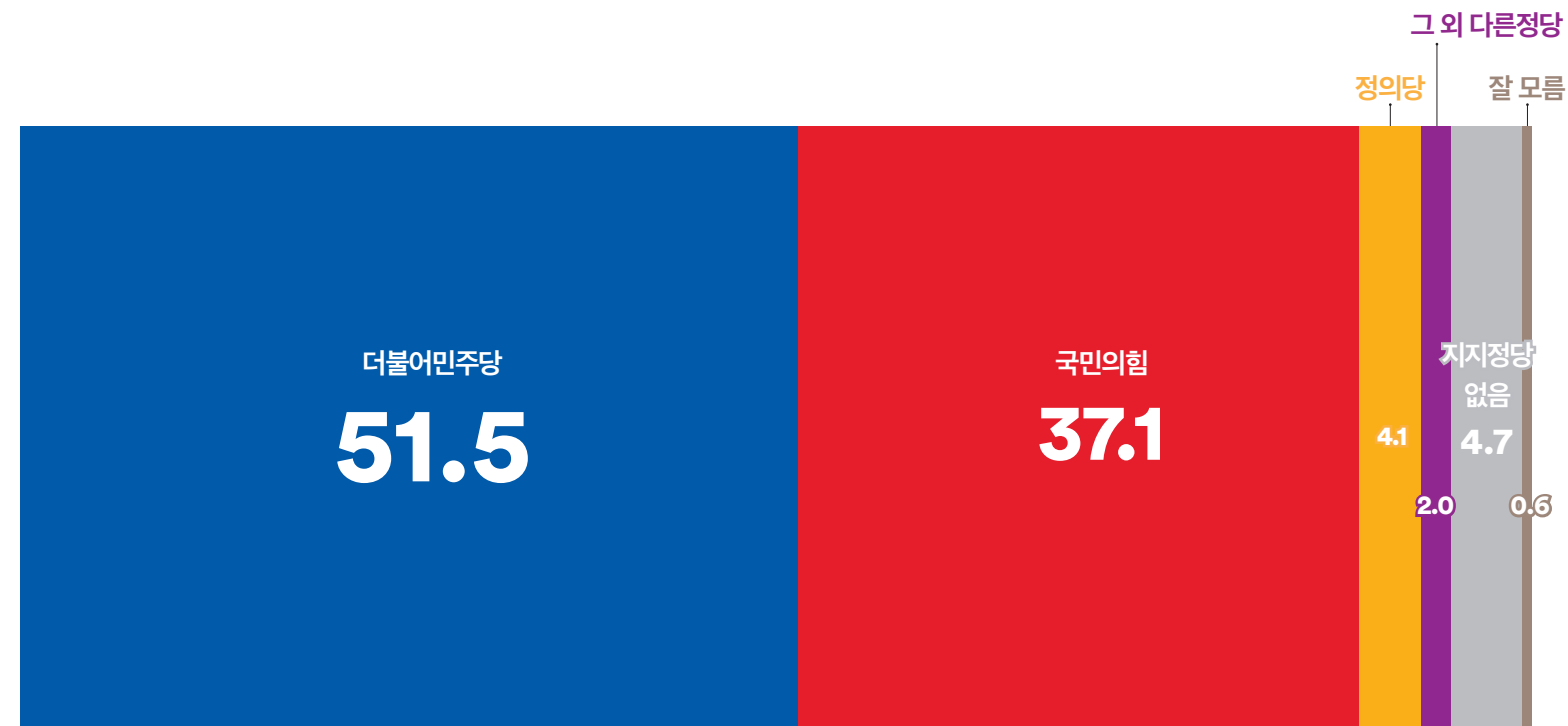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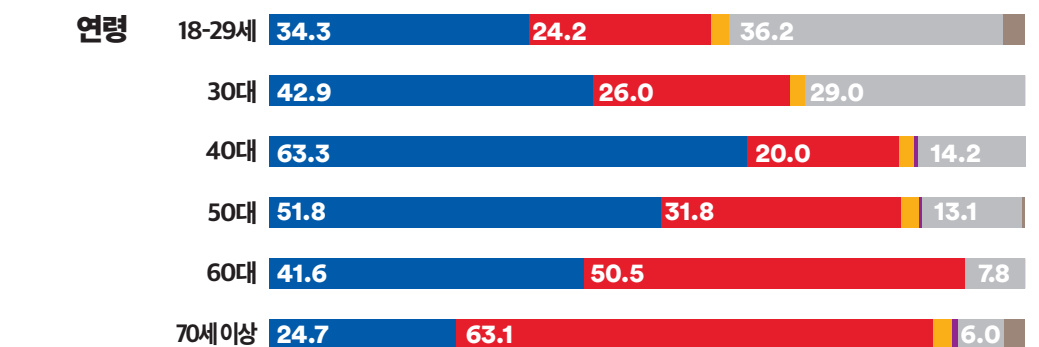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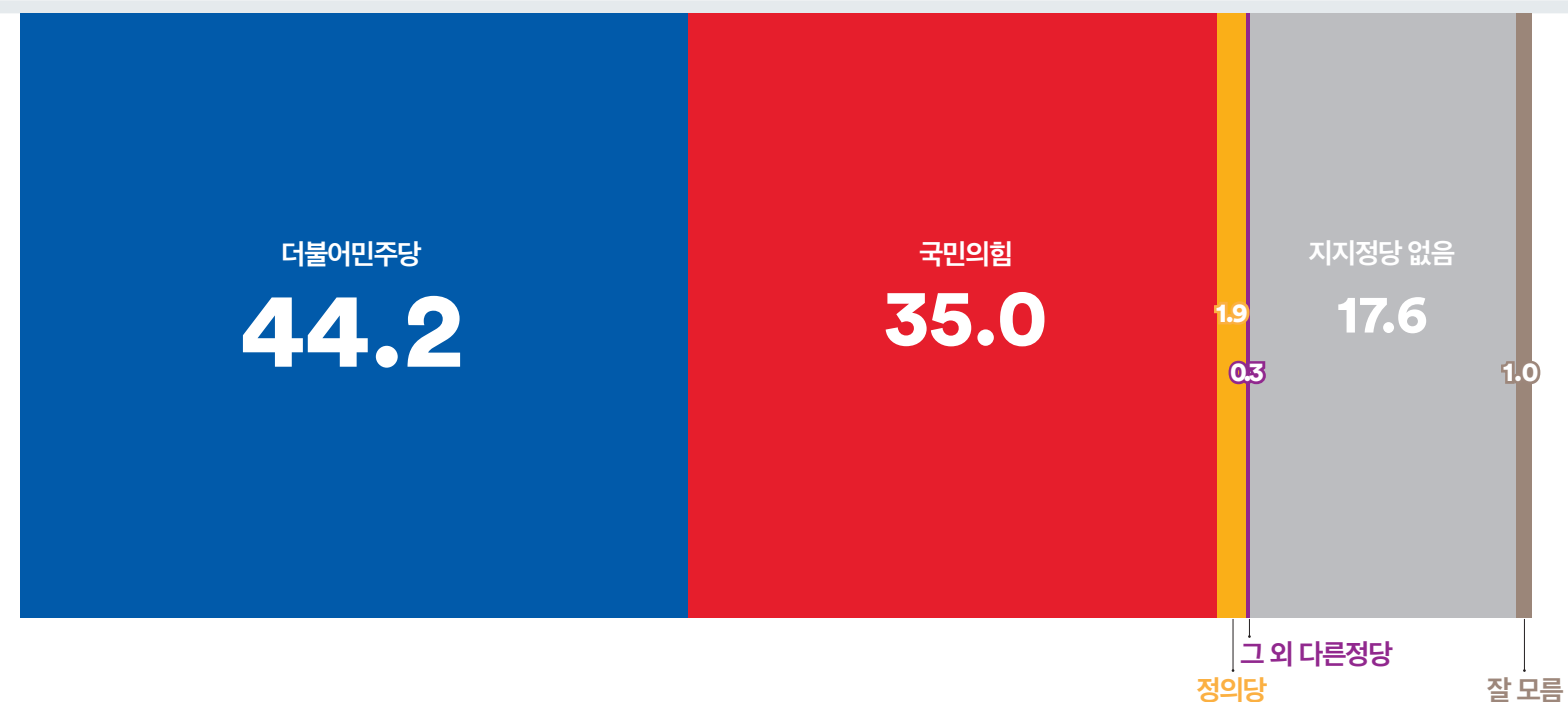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4.5%p 상승, 국민의힘 2.6%p 하락(격차 14.4%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9%p 상승, 국민의힘 1.5%p 상승(격차 9.2%p)

더불어민주당은 경인·호남권과 여성층, 진보·중도층,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앞서고, 국민의 힘은 TK, 보수층,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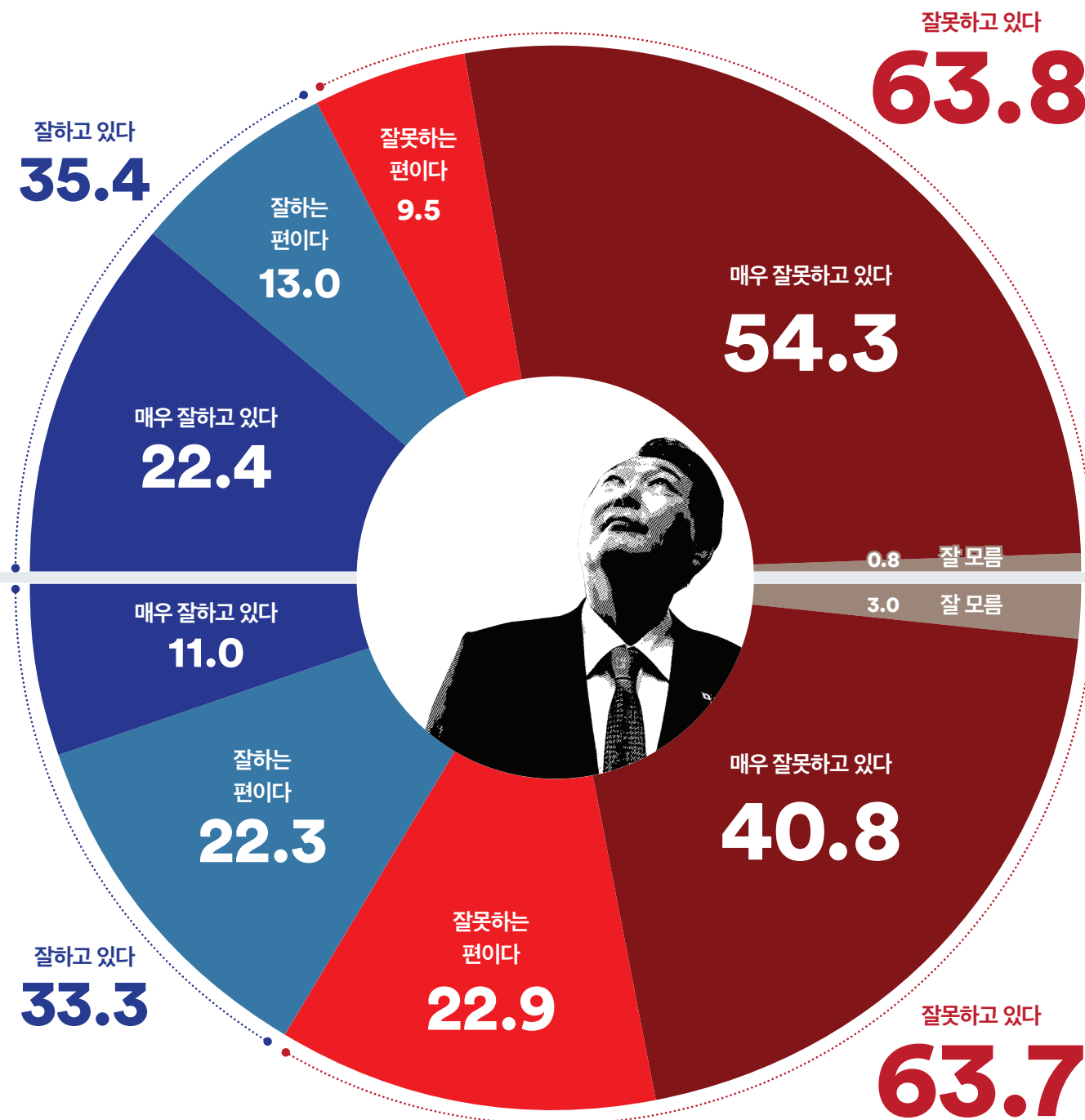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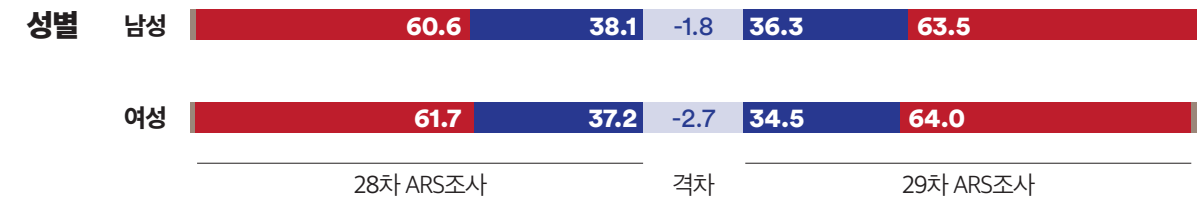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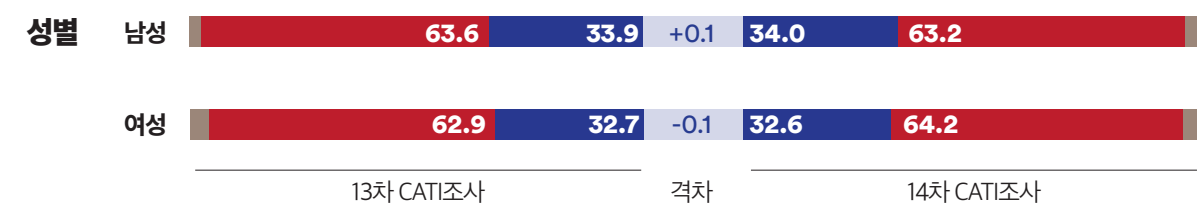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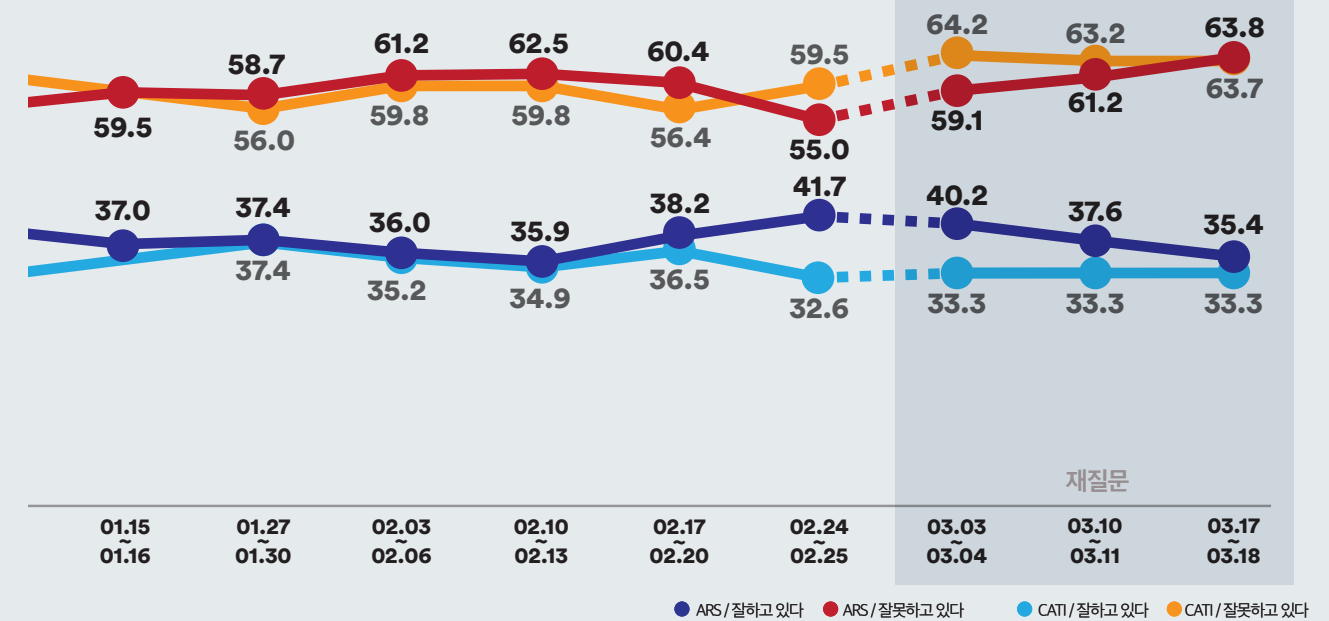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2.2%p 감소, 부정평가 2.6%p 증가 (격차 28.4%p)  
 지난 CATI 조사 대비 부정평가 0.5%p 증가 (격차 30.4%p)  
 18~50대 이하는 부정 평가 우세, 70세 이상은 긍정 평가 우세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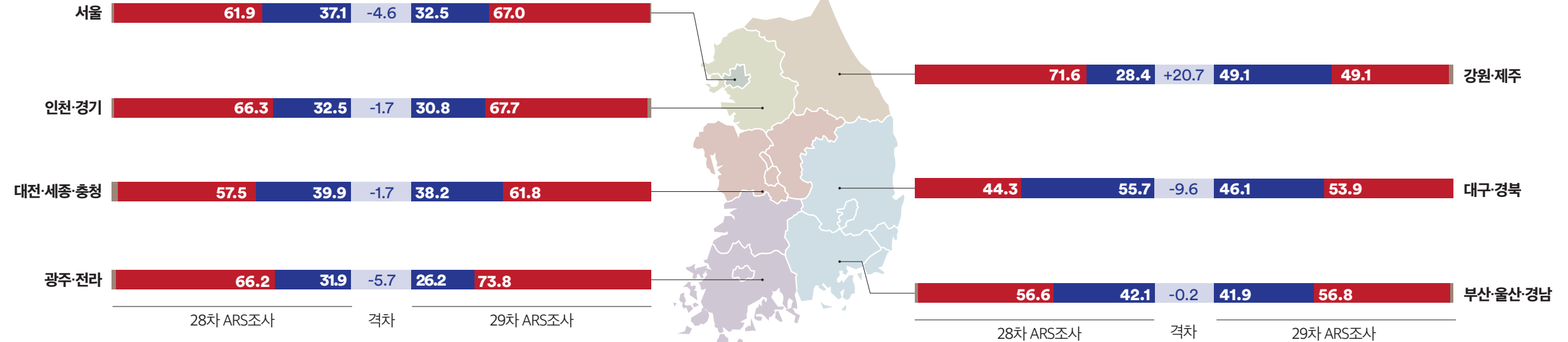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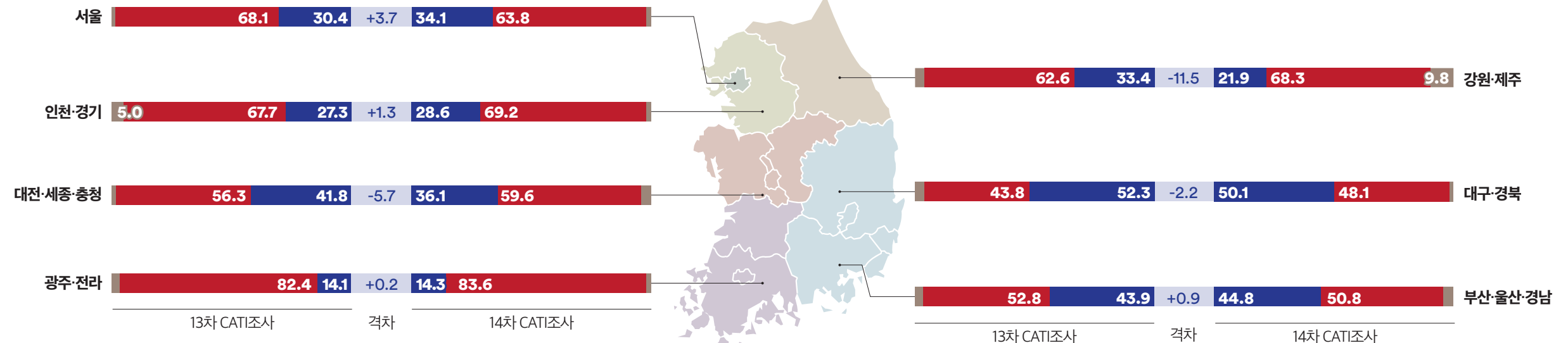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격차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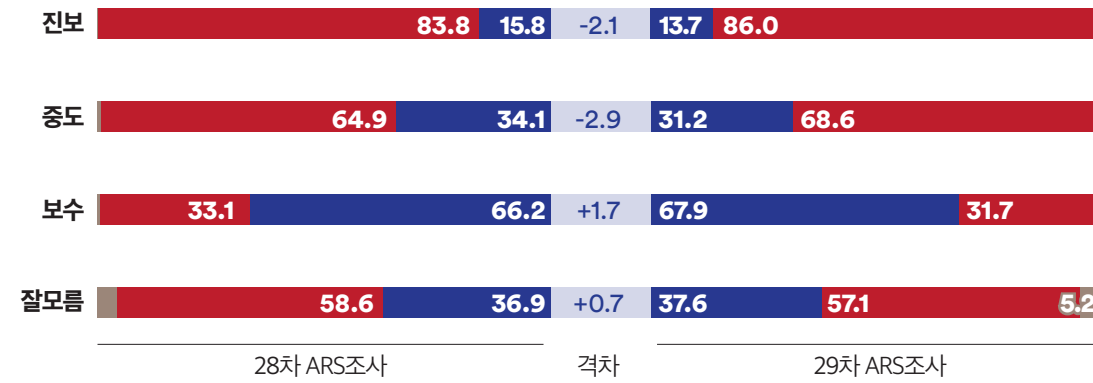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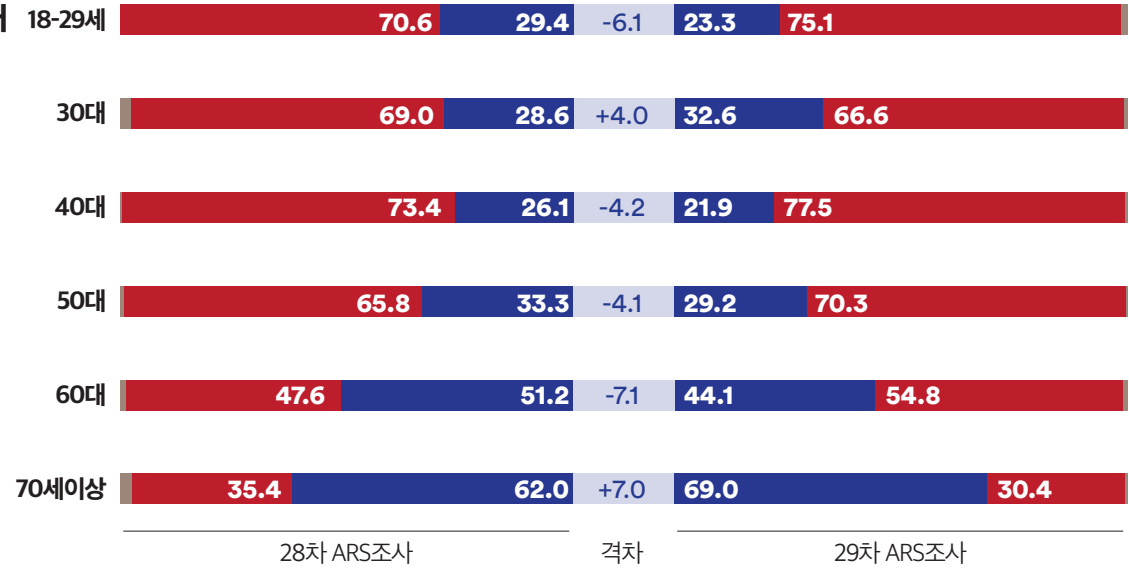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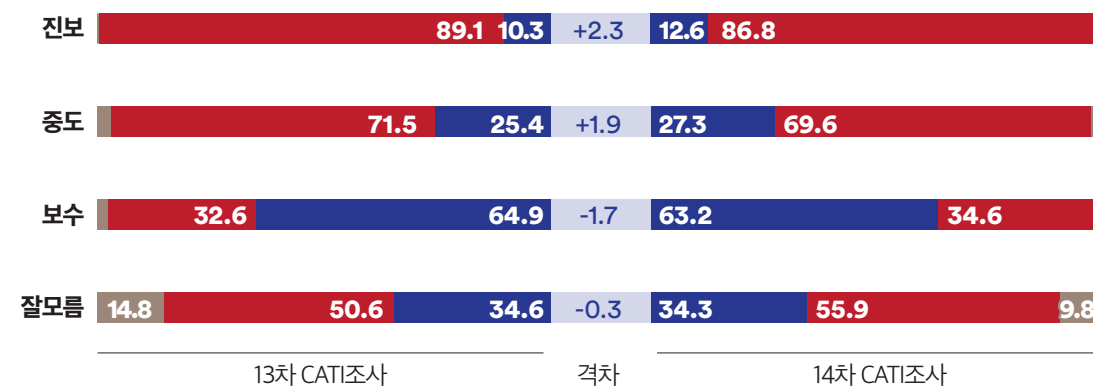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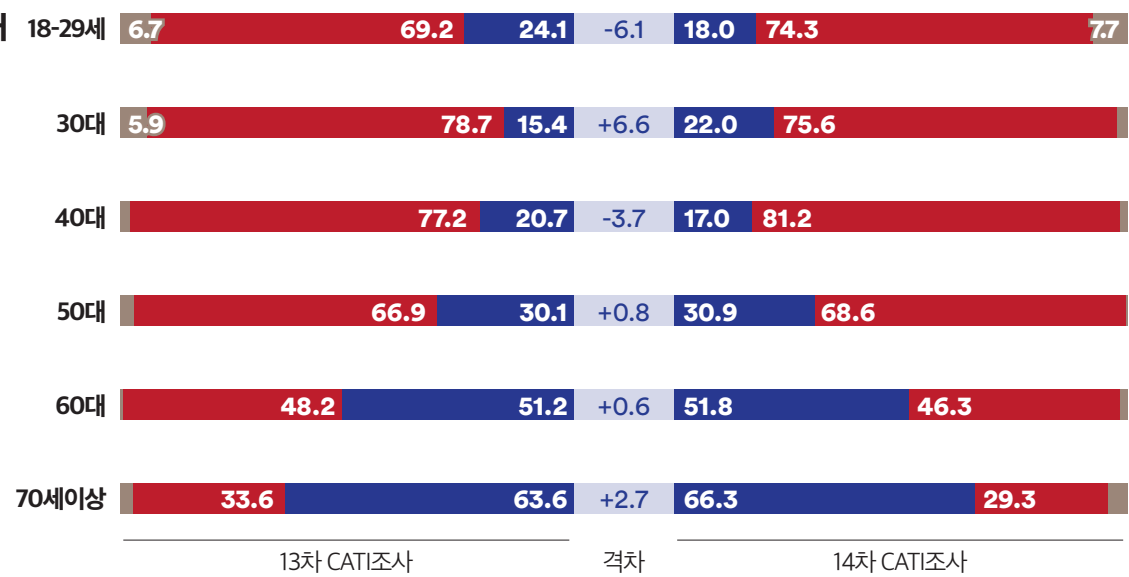


CATI

이념성향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 여론조사꽃 제31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한일 정상회담 • 독도

## ARS & CATI / CATI

<b>정치·사회 현안</b>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
	일본 정부의 오프라이스 접대
	한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예산 전액 불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피해 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안’ 발표 후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안은 내가 생각해 낸 것, 향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평가와 이후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프라이스 접대를 준비한 일본의 대접이 적절했는지 묻고,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 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재선정 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예산이 전액 불용된 상황에 대해 묻고 그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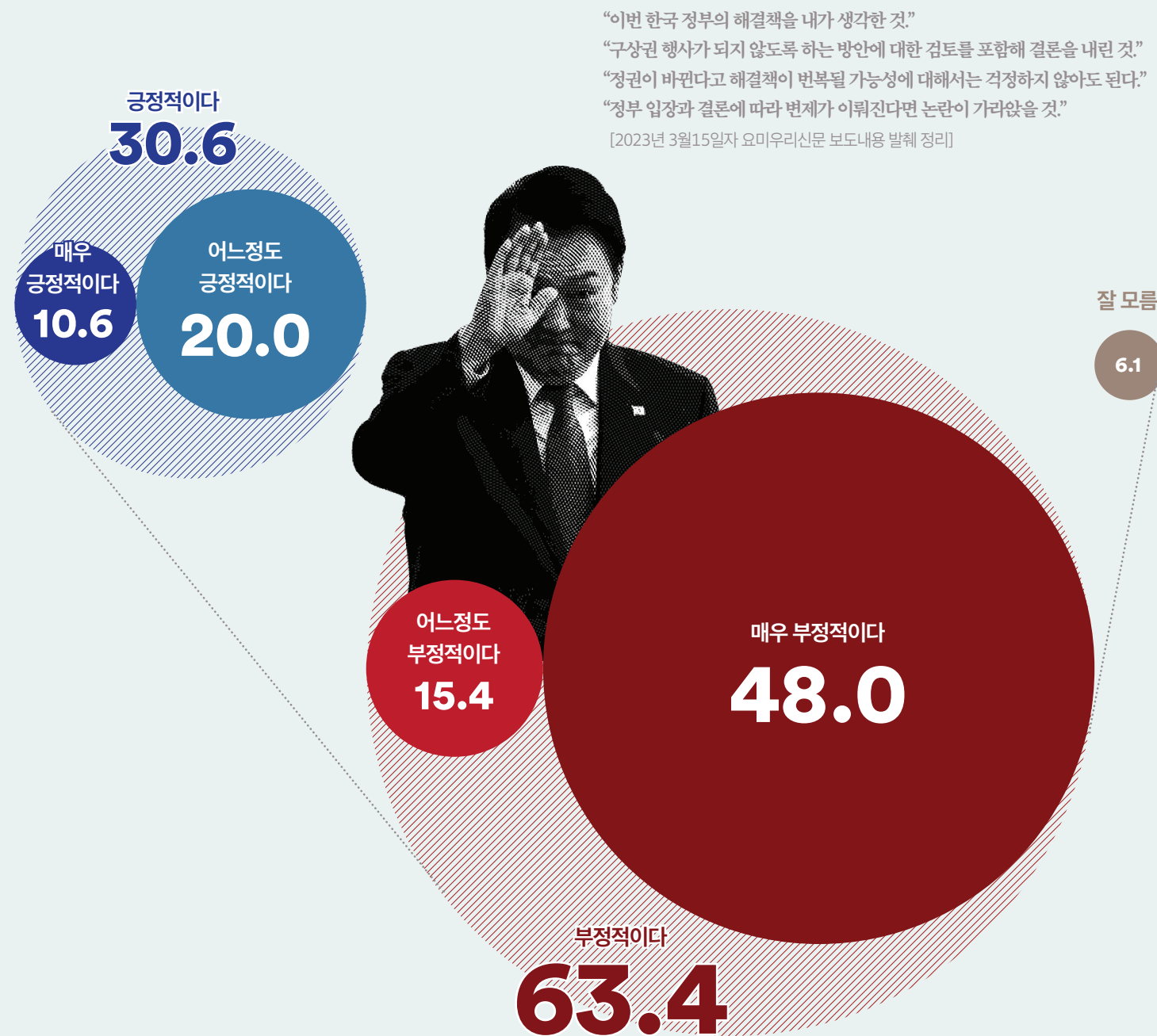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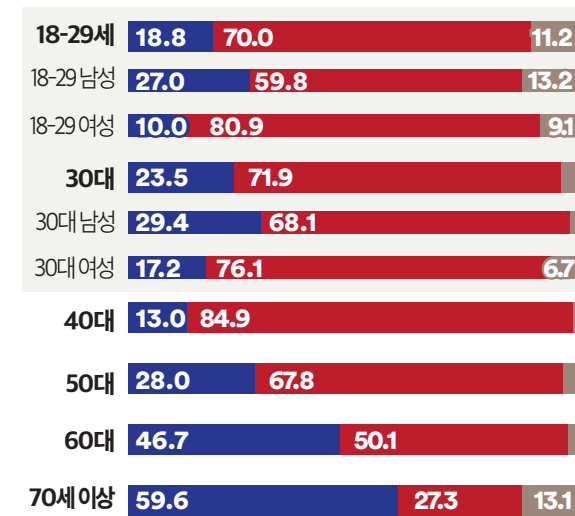
### 구상권 청구는 없을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

Q.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전범기업에 대해 ‘앞으로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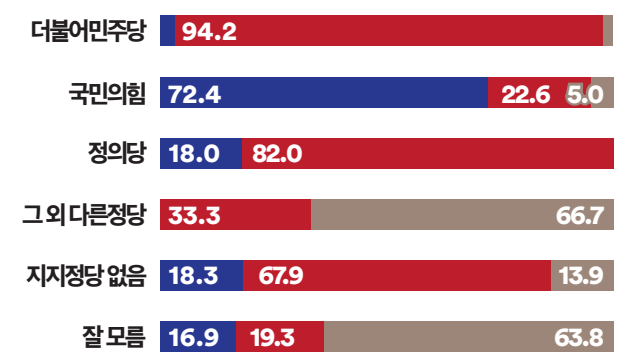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부정적 의견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앞섰으며, 특히 수도권과 충청, 호남, 강원·제주에서는 우세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우세, 70대 이상과 보수층은 ‘긍정적’ 응답 우세  
무당층(부정적 67.9%)과 중도층(부정적 67.8%)에서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세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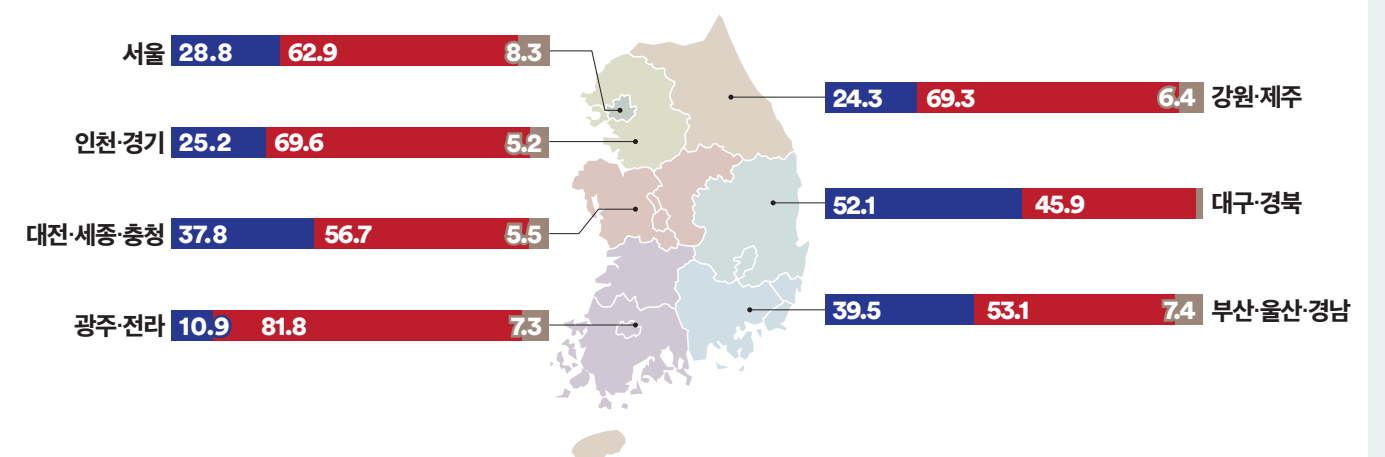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 성별



#### 권역



■ 긍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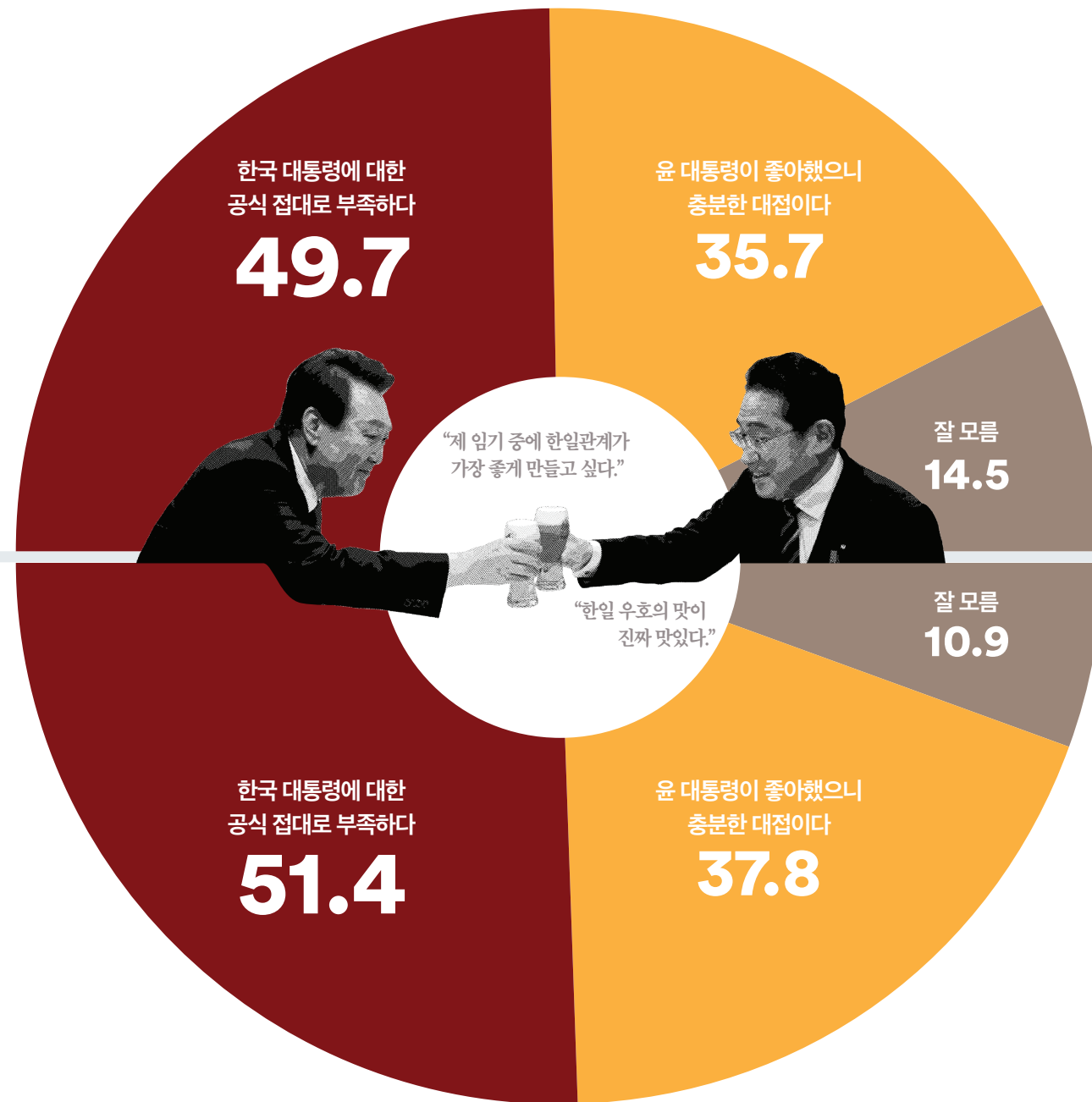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일본 정부의 오프라이트스 접대

Q.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오프라이트스 접대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대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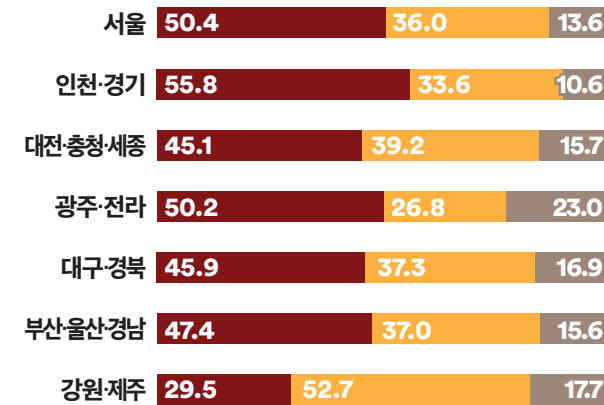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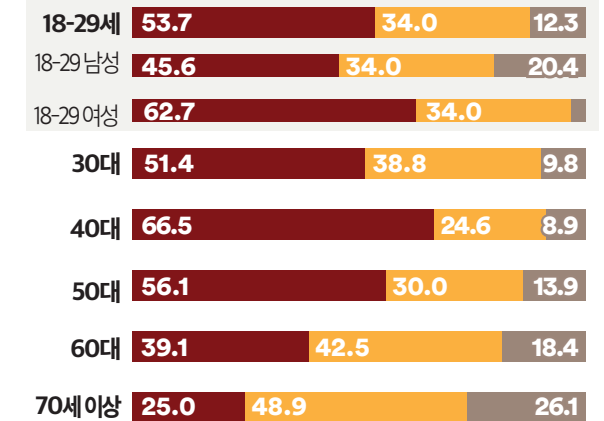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국빈에 대해 부족했던 접대’라고 인식  
경인 및 호남(CATI 조사는 충청, ARS 조사는 서울 포함) 권역에서는 ‘부족한 접대’란 응답이 우세  
5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부족한 접대’란 응답, 60대 이상에서는 ‘충분한 대접’이란 응답이 더 많음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충분한 대접’이란 인식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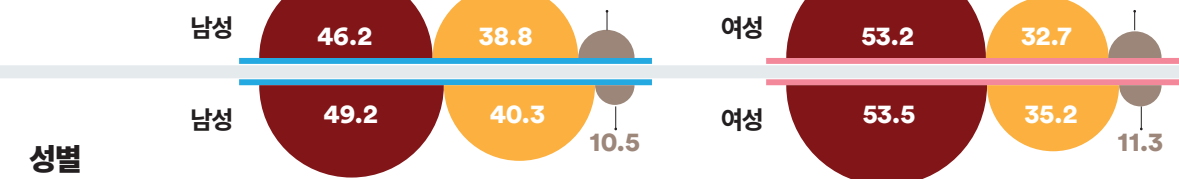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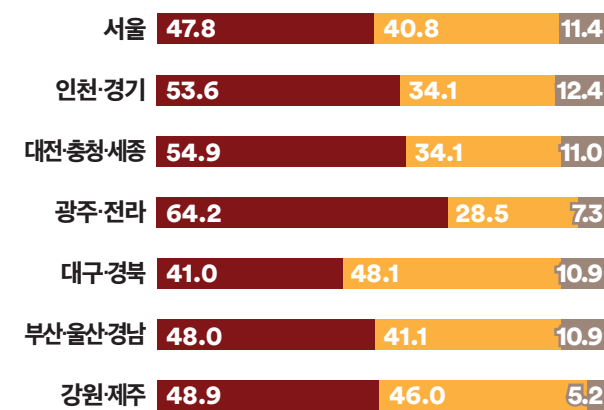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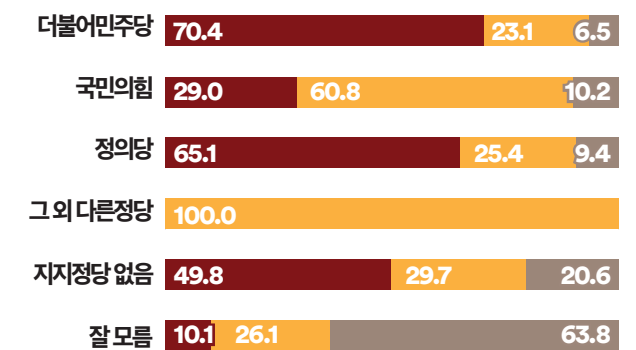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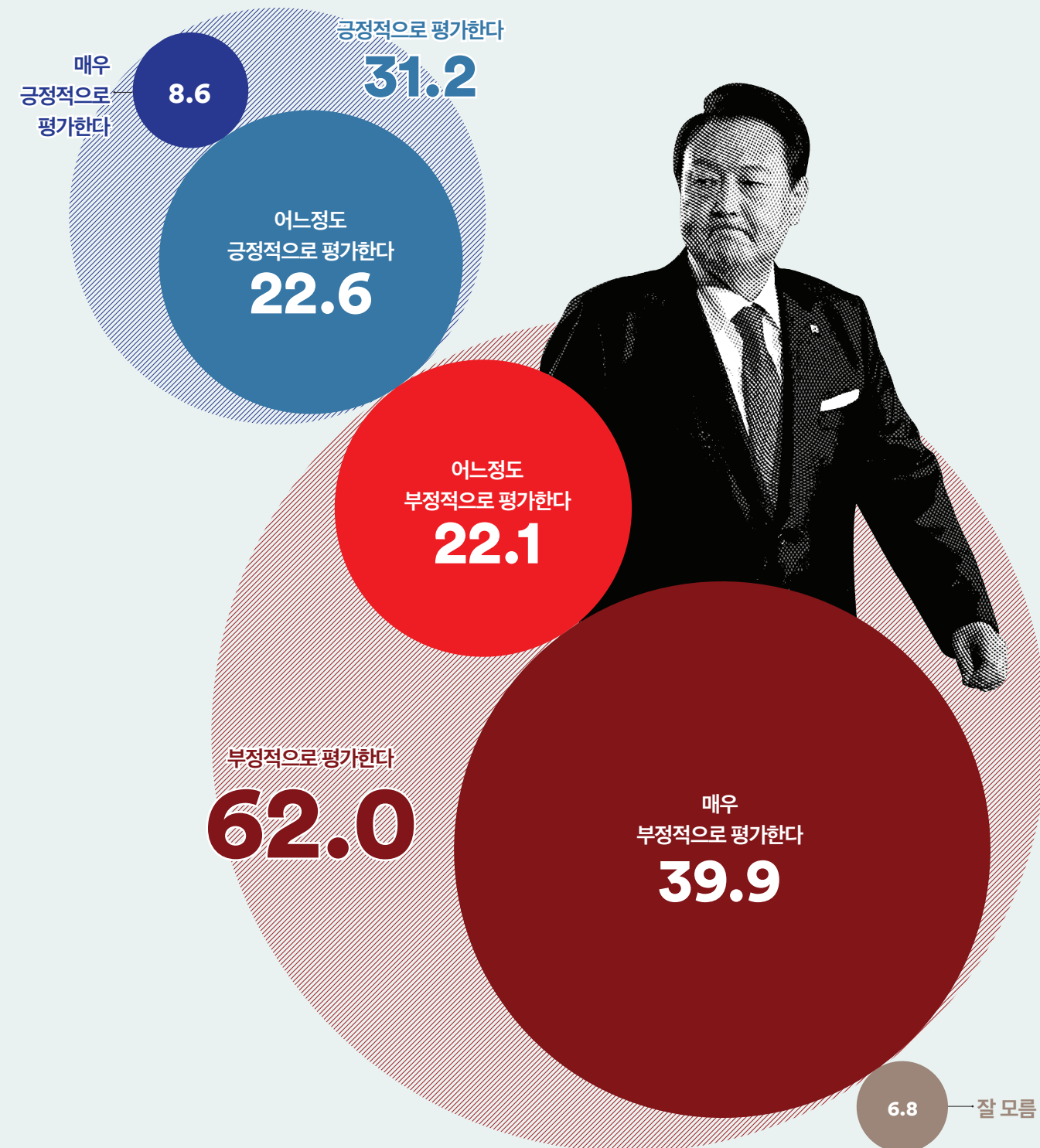


■ 부족한 접대이다 ■ 충분한 대접이다 ■ 모르겠다

## 정치·사회 현안

## 한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

Q.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공동성명 없이 끝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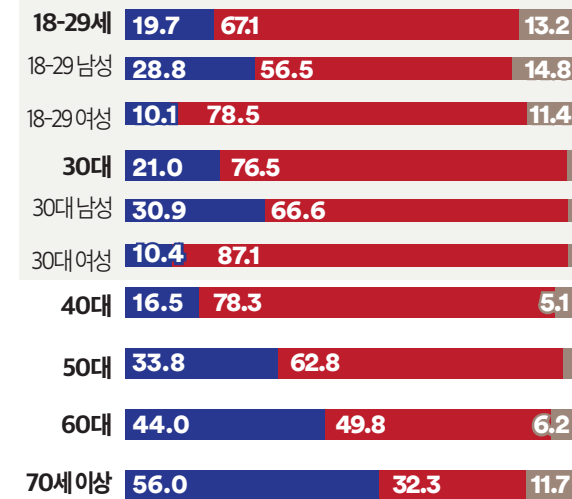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은 '부정적'이라 응답 (격차 30.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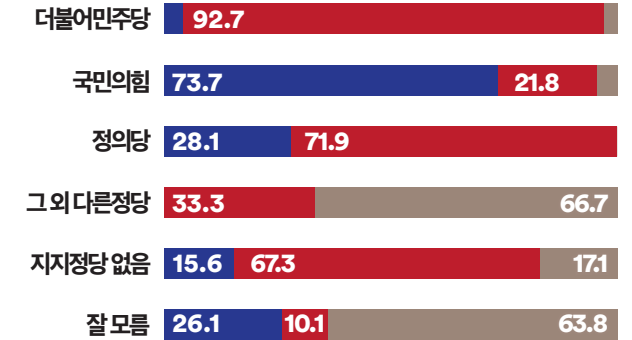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앞섰으며, 50대 이하 응답자는 '부정적 평가'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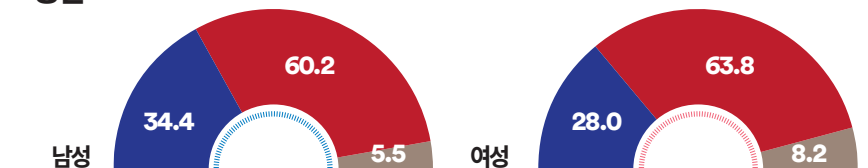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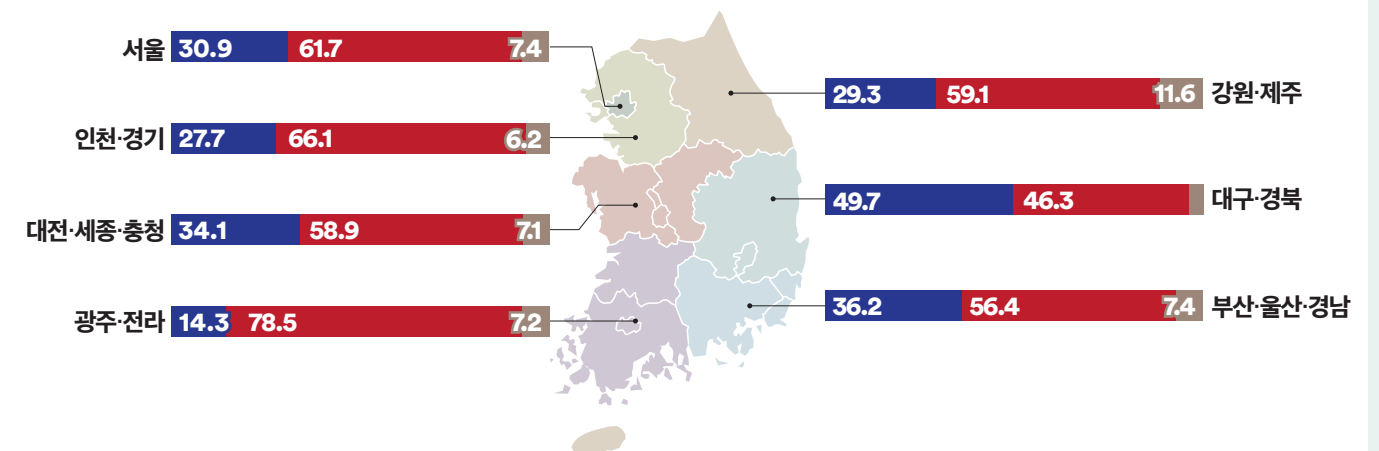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 성별



## 권역



■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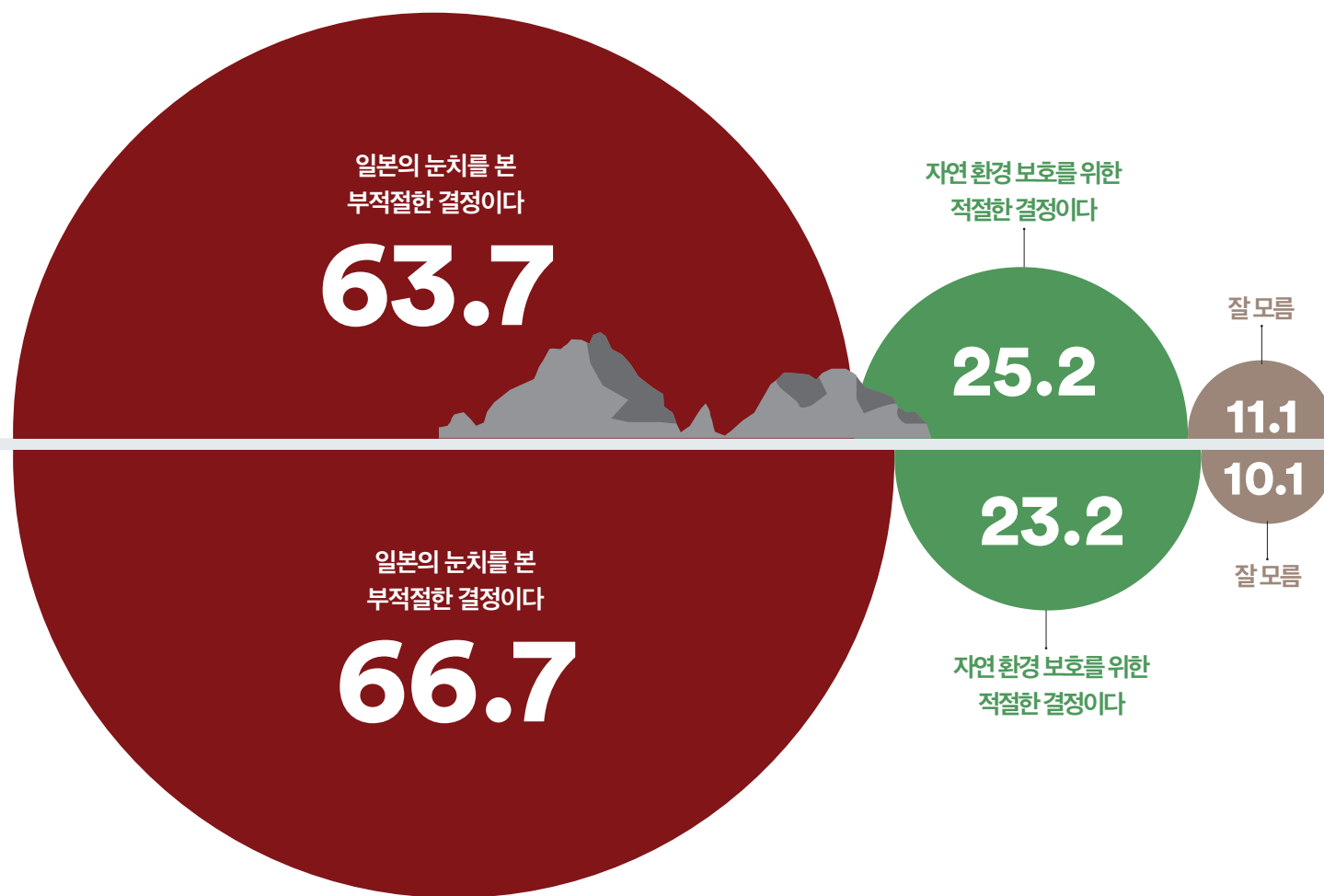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예산 전액 불용

Q. 해양수산부가 독도방문 관광객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지원을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예산을 전액 불용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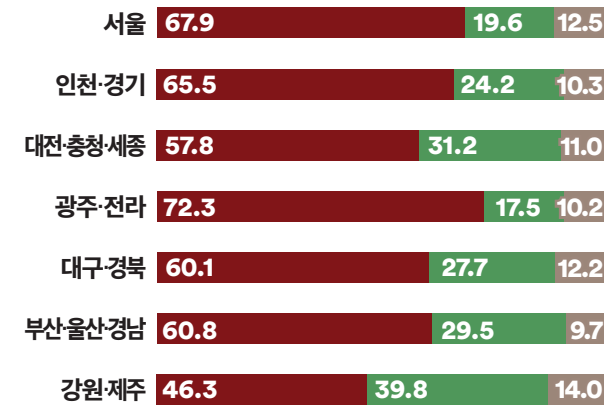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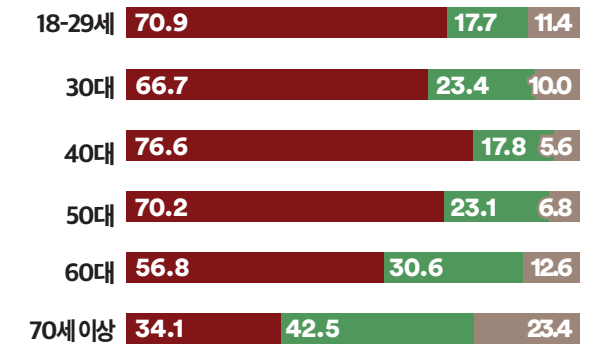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예산 전액 불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부적절한 결정'이란 응답이 더 많음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무당층(CATI 71%, ARS 78%)·중도층(CATI 69.6%, ARS 68.9%)에서 강한 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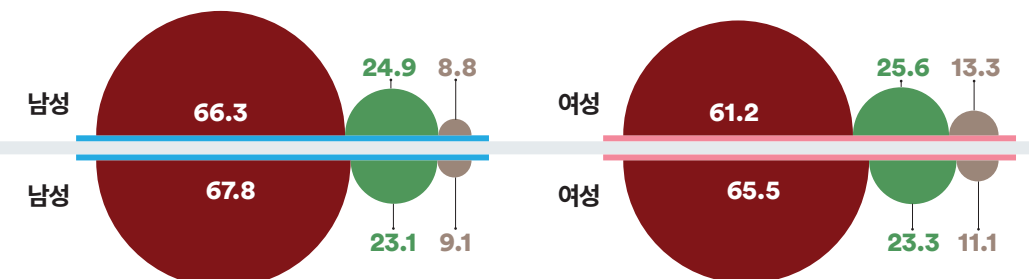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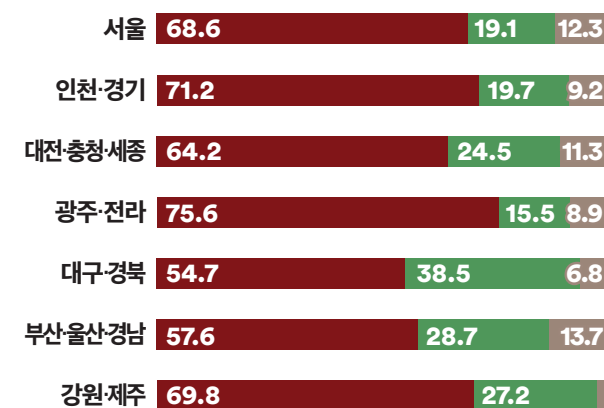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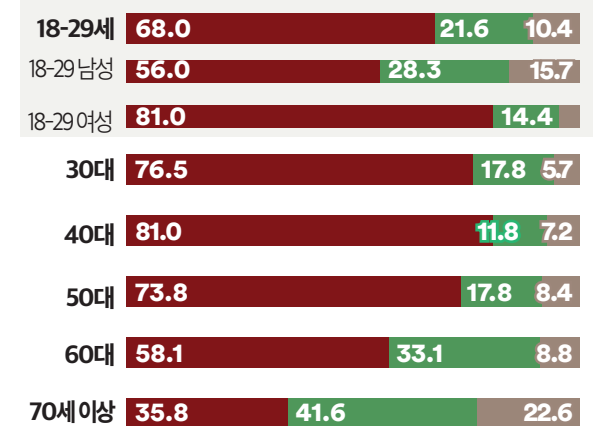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 부적절한 결정 ■ 적절한 결정 ■ 모르겠다



# 여론조사꽃 제31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관련 이슈

## ARS & CATI / CATI

**정치·사회  
현안**

국민의힘: 친윤 지도부와 총선

국민의힘: 윤석열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소 훼손 사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내부 비판의 영향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계로 일컬어지는 후보들이 지도부에 대거 선출되었습니다. 친윤계 지도부가 차기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상해보고, 지도부가 친윤계 일색으로 구성된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당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비판이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난 주 이슈가 되었던 이재명 대표 부모님의 묘소 훼손 사건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이 행위가 주술적 의미를 가진 정치적 테러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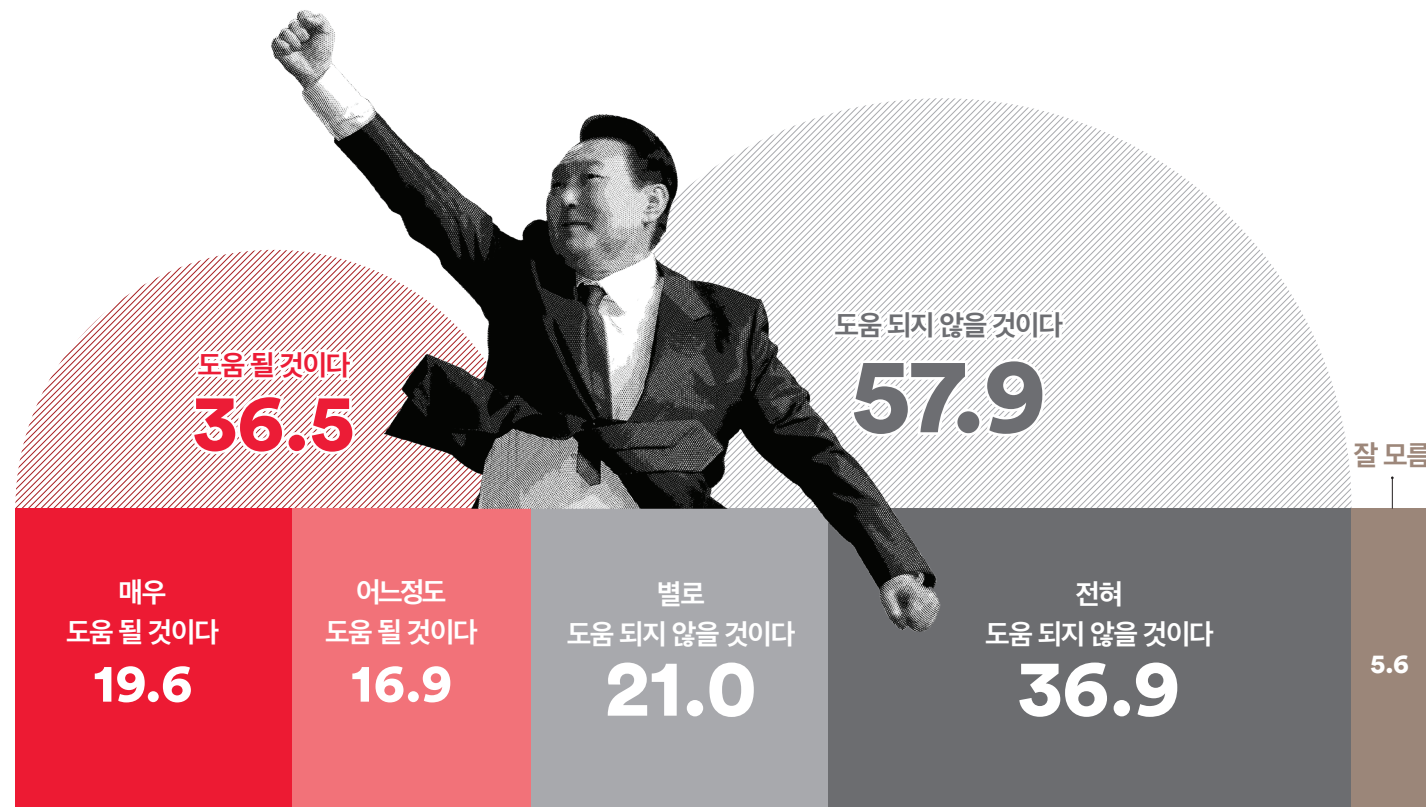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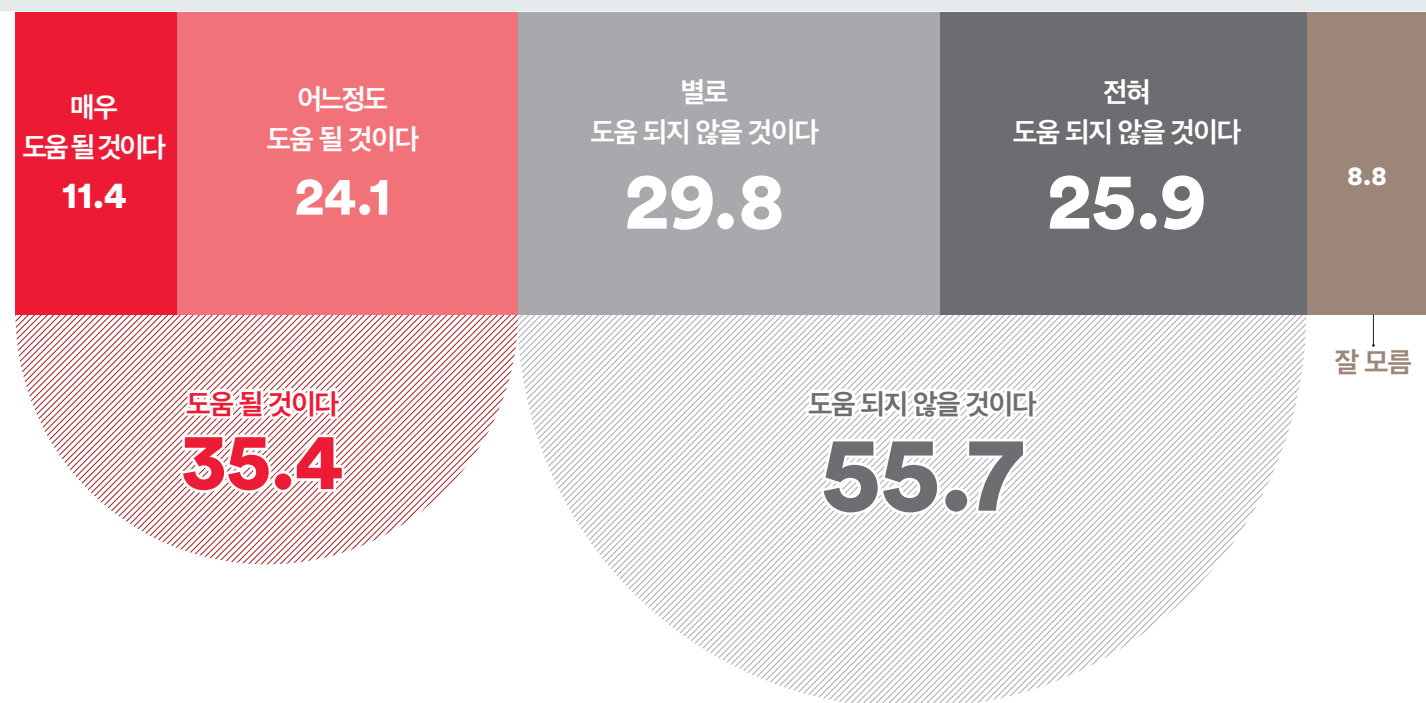
국민의힘: 친윤 지도부와 총선

Q.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부분 친윤계로 구성됐습니다. 이것이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얼마나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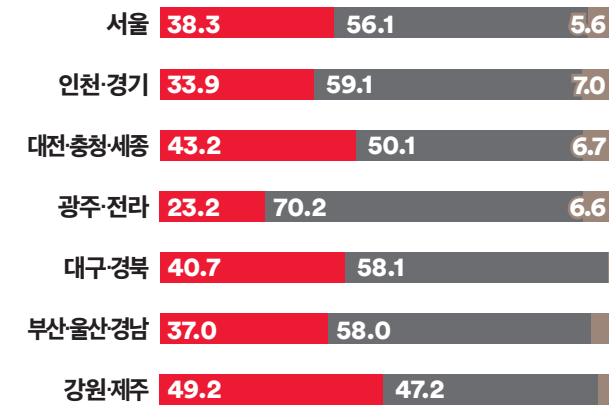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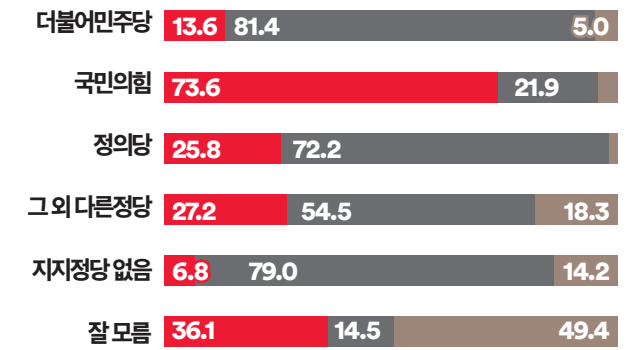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비관적 관측. 특히 수도권과 호남, 모든 성별에서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 우세  
중도·무당층에서는 '친윤 지도부 구성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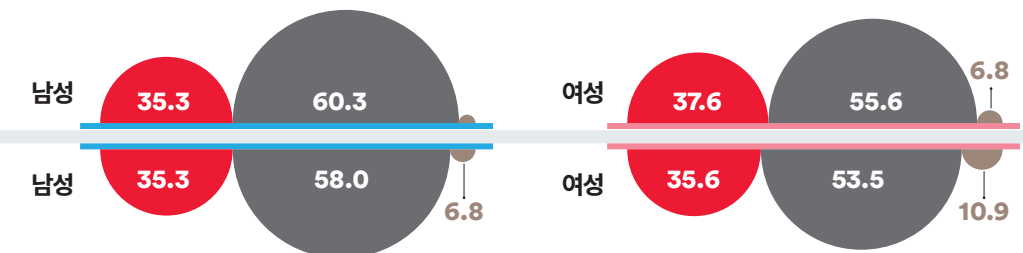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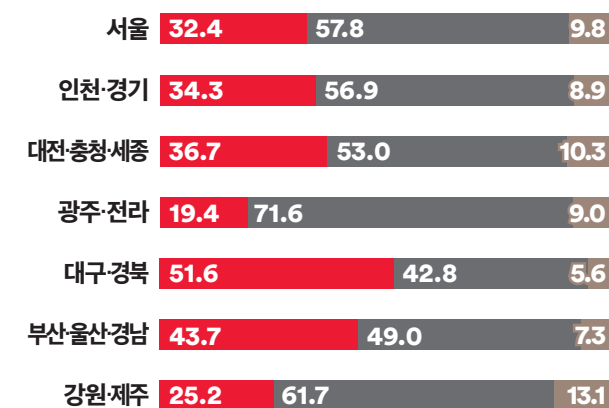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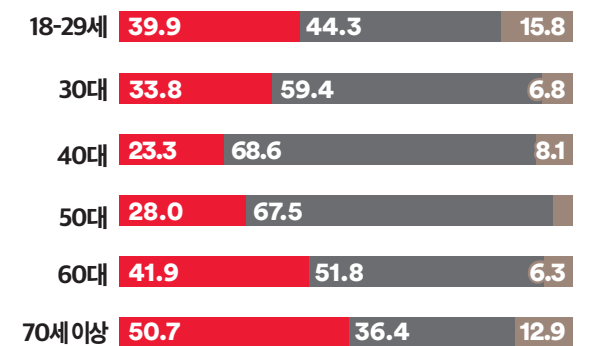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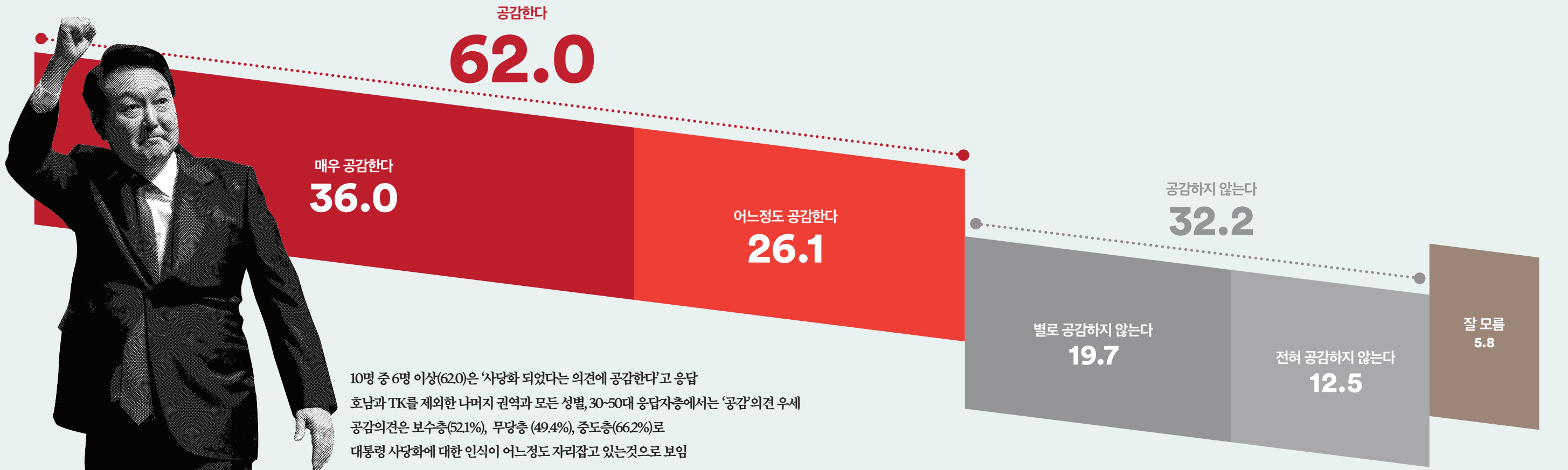
도움이 될 것이다 |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모르겠다



## 정치·사회 현안

### 국민의힘: 윤석열의 국민의힘

Q. 국민의힘 지도부가 친윤계 일색으로 윤석열 개인을 위한 정당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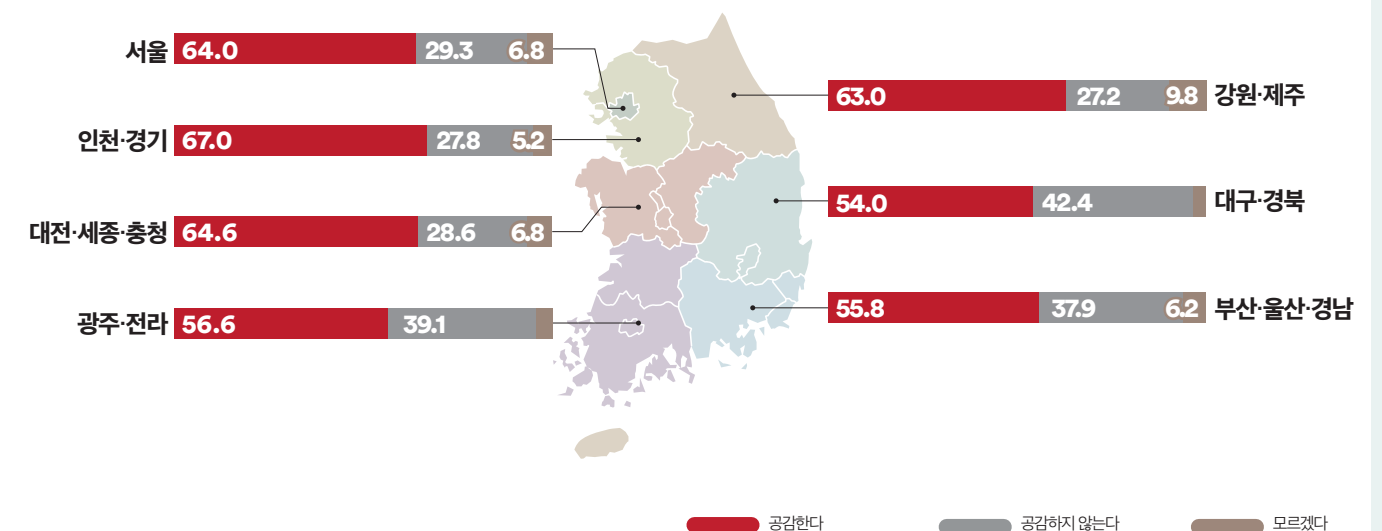
#### 연령

18-29세	47.9	37.8	14.3
18-29 남성	40.6	44.8	14.6
18-29 여성	55.7	30.3	14.0
30대	66.6	28.0	5.5
40대	77.8	19.6	
50대	70.0	27.6	
60대	57.3	40.2	
70세 이상	47.8	43.4	8.8

####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78.5	18.6	
국민의힘	46.9	49.5	
정의당	81.9	18.1	
그 외 다른정당	66.7	33.3	
지지정당 없음	49.4	35.2	15.4
잘 모름	46.3	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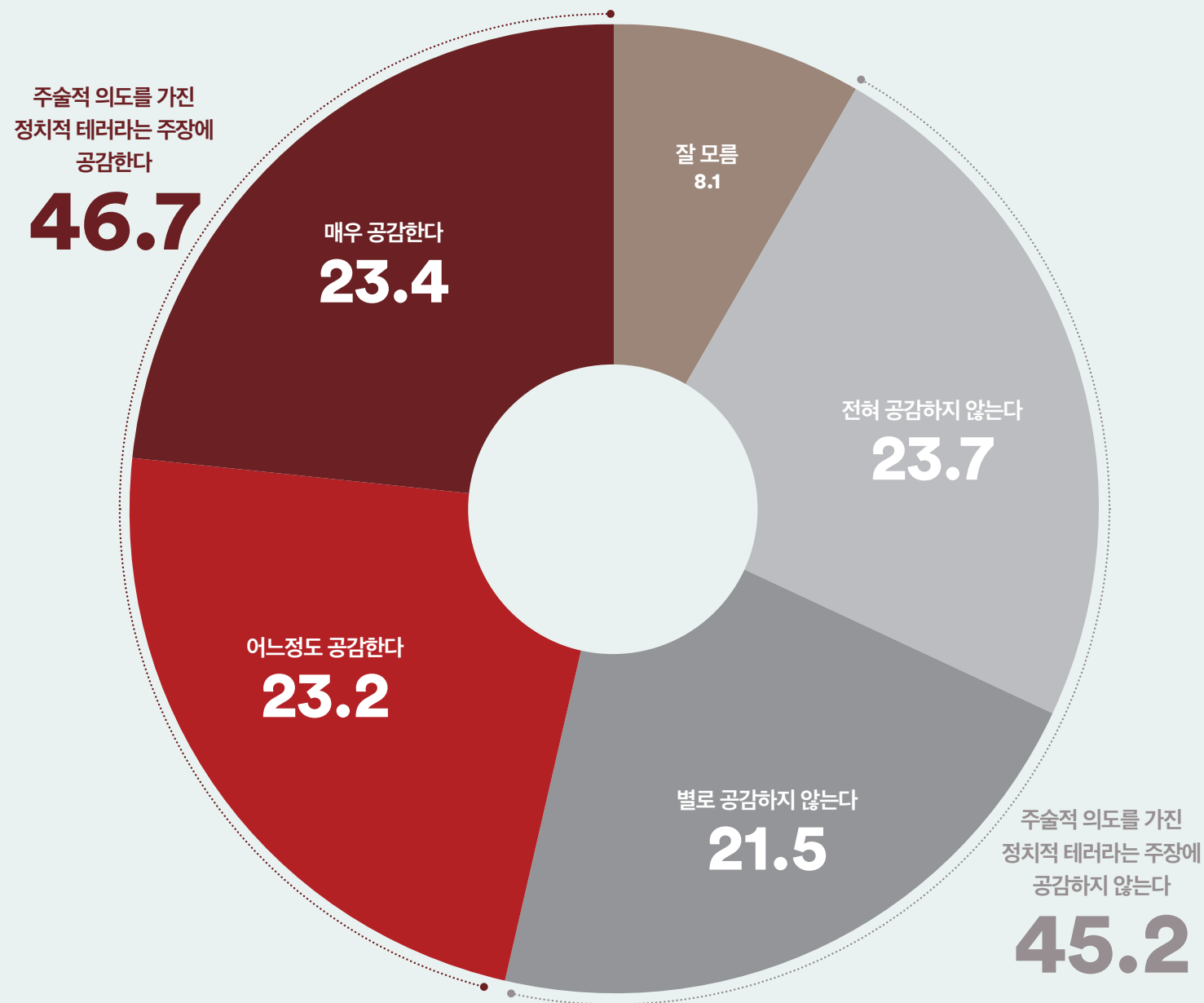
#### 권역



##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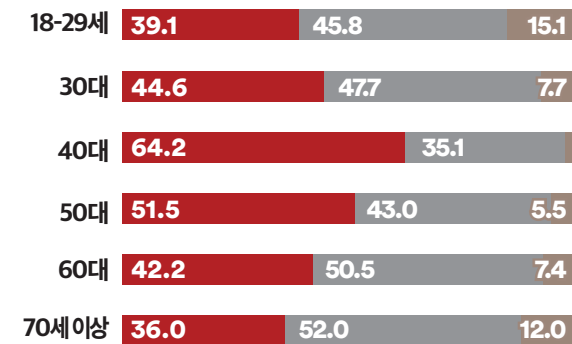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소 훼손사건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소가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주술적 의도를 가진 정치적 테러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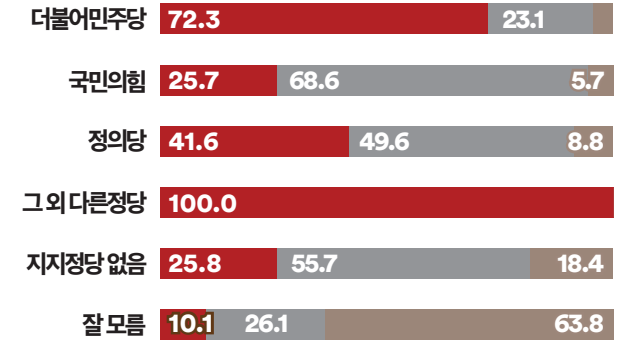


‘공감한다’는 응답(46.7%)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45.2%)이 팽팽하게 갈림 (격차 1.5%p)  
경인, 호남권에서는 ‘공감’ 의견이 우세하고 충청, TK, PK, 강원·제주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더 많음  
40대와 50대에서는 ‘공감’ 의견이 많으나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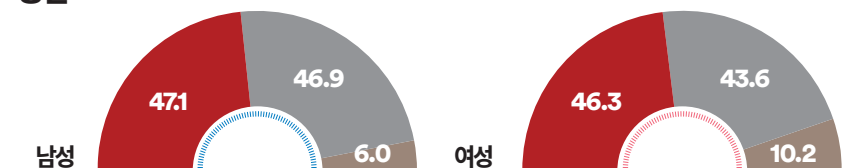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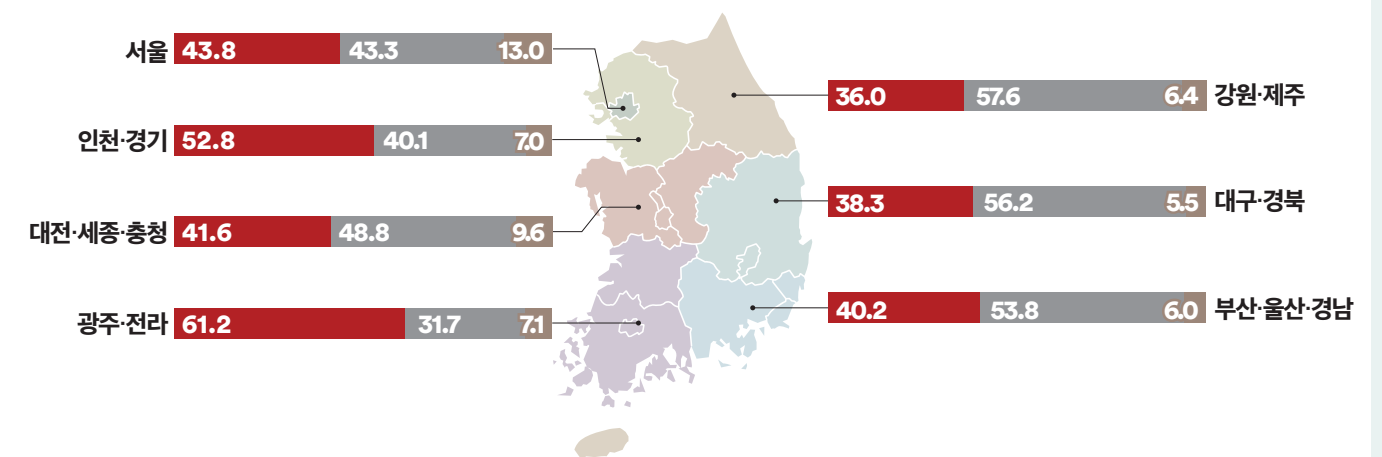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 성별



## 권역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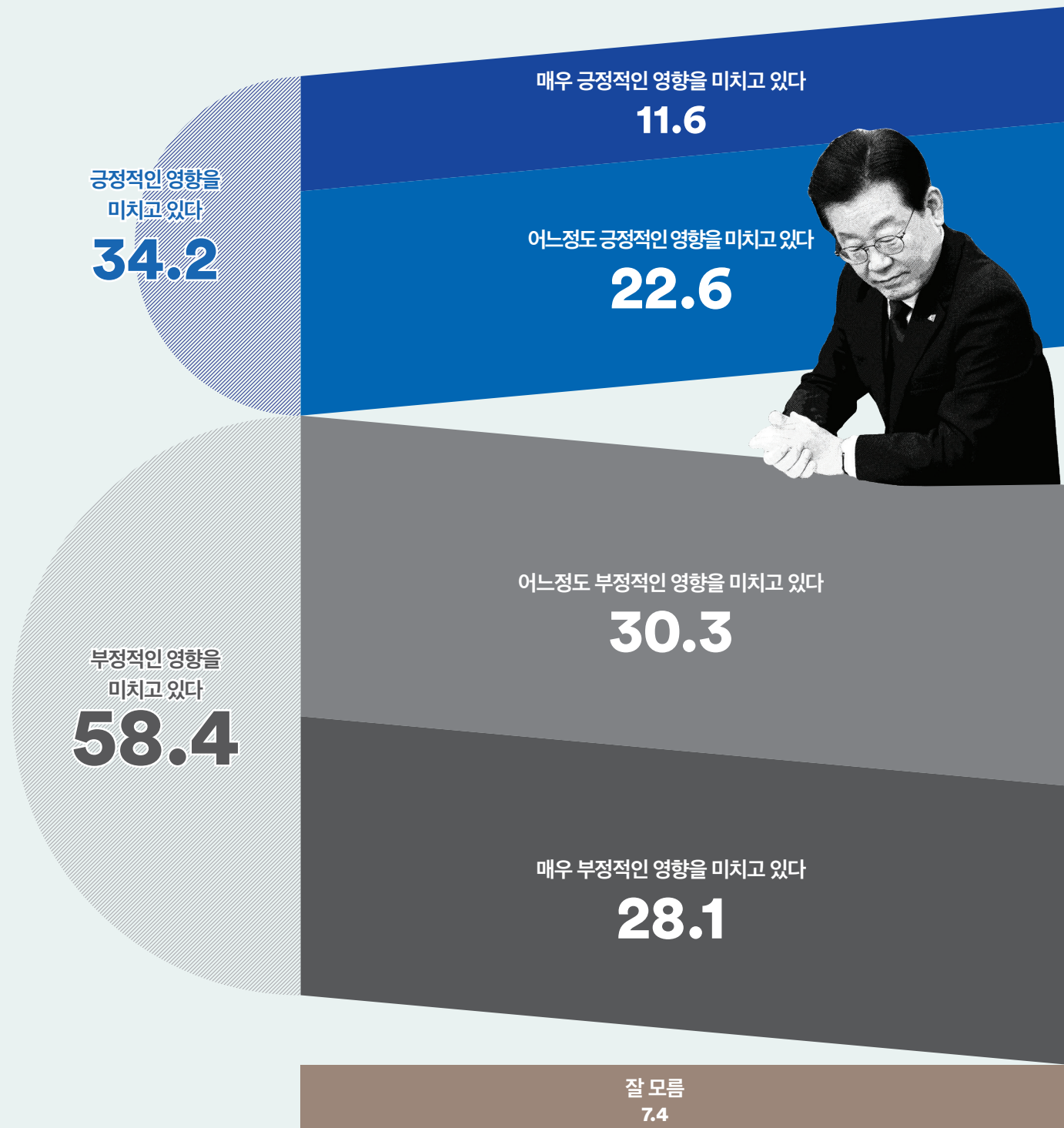




## 정치·사회 현안

### 더불어민주당: 내부 비판의 영향

Q.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비판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6명 정도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 (격차24.2%p)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앞섬

무당층(긍정 39.3% / 부정 43.0%), 중도층(긍정 35.7% / 부정 58.0%), 보수층(긍정 46.6% / 부정 48.7%)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내부 비판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음

#### 연령

18-29세	32.6	53.8	13.7
18-29남성	41.7	48.5	9.9
18-29여성	22.8	59.4	17.8
30대	35.1	59.0	5.9
40대	25.4	68.5	6.1
50대	36.1	60.1	
60대	37.5	57.7	
70세 이상	39.9	48.7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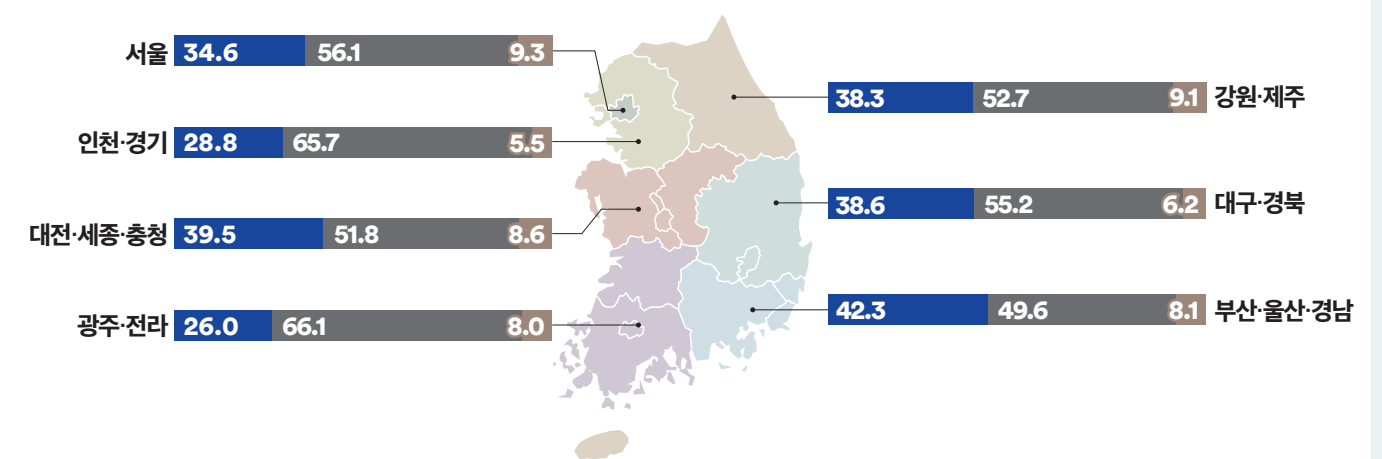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19.9	76.4	
국민의힘	49.4	44.5	6.1
정의당	44.9	55.1	
그외 다른정당	33.3	66.7	
지지정당 없음	39.3	43.0	17.7
잘 모름	19.1	27.1	53.7

#### 성별



#### 권역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모르겠다



# 여론조사꽃 제31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 